

노계 박인로 가사의 연구 경향과 연구사의 쟁점

박수밀*

- 차례 -

1. 머리말
2. 노계 가사의 특성과 연구 경향
3. 노계 가사 연구의 쟁점과 의미
4. 결론: 노계 가사 연구의 방향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노계 가사 문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노계 가사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살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는 노계 가사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노계 가사의 창작 시기, 개별 가사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계 가사의 공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계 가사의 공간은 영남 지역이라는 장소성이 두드러진다. 노계의 장소 경험, 지역의 로컬리티, 공간의 사회 정치적 상정에 더욱 주목하면 좋다. 나아가 노계 가사의 전환기 특성과 양면성을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노계 가사를 둘러싼 쟁점에서는 먼저는 작품의 창작 시기와 작가와 관련한 논란을 짚어보았다. 이어 첨예한 논란이 되어온 노계의 신분과 경제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계의 신분이 한미한 향반(鄕班)인지 영향력 있는 사족인지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노계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여러 학자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노계는 한미한 처지의 향반이고 「누항사」에 나타난 화자의 처지는 노계의 실제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양반이면서 한미한 위치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다는 사실은 노계 가사의 문학성을 다시 점검하게 한다. 노계의 도학적 세계관은 한 개인의 치열한 실존적 고뇌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계 가사의 초간본 작품을 잘 살펴 노계 가사에 나타난 작가의 진솔함, 발분(發憤) 의식, 인간적 고뇌 등을 읽어낸다면 노계 가사의 독자적인 문학성이 더욱 드러날 것이다. 요컨대 노계는 독특한 문학세계와 빛깔을 지닌 가사 문학 전문 객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노계 가사는 공간 미학과 양가적(兩價的) 내면 의식 층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주제어 : 노계, 박인로, 가사, 노계 연구사, 공간, 누항사

1. 머리말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1561-1642)는 백 여수의 한시와 68수의 시조, 11편의 가사를 남긴 고전 시가의 주요 인물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편 수의 가사를 남기고 있어서 가사 문학의 대가로 불릴 뿐만 아니라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한국 고전을 대표하는 가사 문학의 삼두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계는 양반 가사에서 서민 가사로 바뀌는 전환기 가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조홍시가(早紅梯歌)」, 「누항사(陋巷詞)」, 「선상탄(船上歎)」 등은 교과 과정에서 빈번하게 다룰 정도로 그 문학과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노계가 고전 시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노계 문학에 대한 성과는 3백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계 가사에서도 자료 발굴 소개부터 개별 작품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업적을 축적해 왔다. 노계 가사의 연구 경향과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점검해 볼 시점이라 생각한다. 노계 가사 문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노계 가사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살펴 후속 연구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노계 가사의 특성과 연구 경향

노계 가사는 현재까지 11편이 전해지고 있다. 『노계집(蘆溪集)』에 실린 「태평사(太平詞)」, 「선상탄(船上歎)」, 「사제곡(莎堤曲)」, 「누항사(陋巷詞)」, 「독락당(獨樂堂)」, 「영남가(嶺南歌)」, 「노계가(蘆溪歌)」와 개별 필사본으로 발견된 「소유정가(小有亭歌)」와 「입암별곡(立巖別曲)」, 그리고 『영양역증(永陽歷贈)』¹⁾에 실린 「상사곡(相思曲)」과 「권주가(勸酒歌)」를 합해 총 11편이다.

「태평사」는 임진왜란 이후 무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노계가 1598년(38세)에 자신이 섬겼던 경상도좌병사 성윤문(成允文)이 수군을 위로하는 가사를 써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은 작품이다. 명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왜적을 내쫓고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힘을 다해 싸운 군사들 덕분에 전란이 끝났음을 치하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정신과 평화를 사랑하는 심정을 담아냈다. 문체가 강건하고 무인다운 기상이 넘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605년(45세)에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노래한 「선상탄」을 지었다. 전체가 68절 144구이다. 병선에 올라 대마도를 바라보며 배에 대한 각종 상념을 노래하고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우국충정과 더불어 평화를 되찾아 태평 시절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태평사」와 더불어 전쟁 가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611년(51세)에는 각별한 관계였던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교유하면서 그를 대신해 「사제곡」을 지었다. 용진강 사제의 빼어난 경치를 묘사하고 사제에서 한가로이 자연과 벗삼으며 지내는

1) 김석배는 『영양역증』이란 표현은 적절한 명칭이 아니며 경오본 『노계가집』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일단 기존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영양역증』이란 명칭을 썼다.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연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219-239면.

한음의 생활을 노래했다. 같은 해에 산골 생활의 어려운 형편을 묻는 한음의 요청으로 「누항사」를 지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곤궁한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충성과 효도, 형제 우애로 살아가겠다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가 작품에 담겨 있다. 임진왜란 이후 양반의 궁핍한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항사」는 문학성도 뛰어나고 양반이면서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작중 화자의 처지가 곡진하게 드러나 있어서 교과 과정에서도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작품 속의 화자가 작가의 실제 처지를 말하고 있는지, 작가의 상상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 뒤의 논의에서 다를 것이다.

1617년(57세)에는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와 함께 대구의 금호 강변에 있는 소유정 에 들러 「소유정가」를 지었다. 「소유정가」는 1692년에 필사되어 현재까지 발굴된 노계의 가사 가운데 문자로 정착된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소유정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내력을 말하고 강호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작가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1619년(59세)에는 회재 이언적의 유적지인 경주 옥산서원의 독락당을 찾아가 그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변의 경치를 읊은 「독락당」을 지었다. 총 123행으로 노계의 가사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길다. 1629년(69살)에는 장현광 및 그의 네 벗과 함께 포항 죽장에 있는 입암에 노닐면서 입암(立巖)의 28경을 노래한 「입암별곡」을 지었다.

1632년(72세)에는 「상사곡」과 「권주가」를 지었다. 「상사곡」은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화자가 입에 대한 연정의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한 가사이다. 입금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마음을 남녀의 관계에 빗대어 노래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이다. 「권주가」는 선산 영감이 명해서 쓴 작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선산 영감은 선산 부사를 지낸 한음의 셋째 아들 이여황(李如璜, 1590-1633)이다. 12가사 중의

하나인 「권주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생무상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좋은 시절을 맞이하여 술 마시며 시름을 잊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25(75세)에는 영남 안찰사로 와 있던 이근원의 덕치를 칭송하는 「영남가」를 지었다. 이듬해인 1636년(76세)에는 자신이 은거하고 있던 경주 노계 계곡의 배어난 경치를 묘사하고 자연에 깃들여 살면서 물아일체의 삶을 구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계가」를 지었다. 이후 1642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같이 노계는 가사 작가 중에 가장 많은 11편의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가사 문학사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11편 가운데 7편은 『노계집』에 실려 전해오고 있었으며 「입암별곡」과 「소유정가」는 개별 필사본 형태로 발굴되었다. 이후에 「상사곡」과 「권주가」는 한음 이덕형의 후손인 이윤문에 의해 간행된 「영양역중」에 실려 전하는 것을 김문기 교수가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노계 가사 가운데 「태평사», 「누항사», 「사제곡», 「상사곡», 「권주가」 등 다섯 작품은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쓴 것이다.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노계가 가사 전문 작가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태평사», 「누항사», 「선상탄」은 다른 가사에선 찾기 힘든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썼으며 「누항사」는 곤궁한 사대부의 삶을 묘사하여 양반 가사에서 서민 가사로의 전환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계의 고향인 영천을 중심으로 대구, 경주 등 영남지역을 유람한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는 점도 노계 가사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이처럼 노계 가사는 양적으로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쟁, 전원생활, 강호, 풍류, 유교의 덕목 등 그 내용도 다채롭다. 그리하여 그 위상에 걸맞게 노계와 관련한 논문은 현재까지 줄잡아 3백여 편에 이르고

있다. 연구의 내용도 작가의 생애부터 작품세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편이다. 노계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하나하나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특징적인 국면을 중심으로 노계 가사의 연구 동향을 정리해 보겠다.

노계에 대한 조명은 노산 이은상이 「시인 노계와 그의 예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른 연구사가 대개 그러하듯 노계에 대한 접근은 노계의 문집과 생애에 대한 고증부터 이루어졌고 점차 작가의 사상과 작품세계, 형식적 특징, 미의식으로 넓혀갔다. 최근에는 공간의 특성과 가사의 율격, 전고典故 등을 탐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서 노계 문학 연구는 다채로운 편이다. 그 가운데 가사와 관련해서는 노계 가사의 특징과 가사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노계가 가사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게 해주었다.

노계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풍부한 편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노계집』에 실린 「행장(行狀)」과 「세계도(世系圖)」, 「묘갈명(墓碣銘)」 그리고 『밀양박씨세보(密陽朴氏世譜)』 등을 통해 그의 생애를 밝혀냈고, 노계가 쓴 작품들을 통해 노계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 등을 추적해 왔다. 주변 작가의 기록을 통해서도 노계의 교유 관계라든가 활동상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다 보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노계의 전반부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영락零落한 양반가의 후손이다 보니 사대부가이지만 곤궁한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가 작품에도 투영되어 양반 가사와 서민 가사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나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전쟁을 경험한 흔치 않은 삶의 이력 덕분에 「선상탄」과 「태평사」라는 전쟁 가사를 창작하였고, 전란 전후의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노래하였다는 점이다.

생애와 작가 고증, 창작 시기 등의 실증적 탐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21세기 들어서는 개별 가사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누항사」와 「선상탄」은 문학성도 뛰어난 데다 전쟁 체험을 다룬다는 특별한 성격 덕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편이다. 「누항사」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다.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궁핍한 모습이 작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다는 주장과 향촌 사족의 어려운 생활상을 꾸며 쓴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는 작가의 신분적 처지에 관한 논란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컨대 노계가 상당한 지위를 갖던 사족이라고 보는 최현재(2003)는 「누항사」에 나타난 화자의 궁핍한 생활상은 노계의 실제 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노계가 가탁假託한 화자라고 주장한다.²⁾ 「선상탄」에서는 주로 현실 인식과 우국충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사의 형식에 대한 성과도 이루어졌다. 노계의 가사는 송강과 고산과는 달리 한문이 많이 섞여 있으며 전고(典故)와 고사(故事)가 많다. 노계 가사에 나타난 전고와 유사구를 살핀 연구가 있었으며 작품의 구조와 율격에 대한 탐구도 진행되었다. 이선평은 가사 전편(全篇)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통계학적 수치에 근거하여 작품의 율격 및 표현양상을 탐구했다. 노계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여 노계 가사가 양반 가사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³⁾ 최근에는 노계의 시문에 나타난 전고 활용 양상을 다룬 학위논문도 제출되었다. 손장수는 노계가 교유 인물들을 의식한 의도적인 창작행위를 했다고 보고 교유 인물의 부류에 따라 작품의 유형을 달리했으며 작품의 유형에 따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고 등의 활용 양상도 달리했다고 보았다. 그리

2)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서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181-208면.

3) 이선평, 『노계 가사 연구: 율격 및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1.

하여 그 시대 향토 지식인의 지식수준과 독서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⁴⁾

노계 가사의 공간 탐구도 이루어졌다. 김성은은 기존에 국지적으로 접근했던 공간 논의를 확장하여 가사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노계 가사의 공간 유형과 공간 특성의 관계 양상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노계 가사의 공간 의식이 지니는 의미를 탐구했다. 노계는 가사 작품에서 이념, 현실, 정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적 효용성이 큰 가사를 창작할 때는 이념이 확고한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계는 공간이 당면한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태평한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족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보았다.⁵⁾

노계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가 정통 유학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안빈낙도, 자연 친화 사상, 도학 사상, 충효 사상, 은일 사상, 도교 사상, 취락 사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누항사」「소유정가」 등을 통해서 그의 안빈낙도 사상을 끄집어내고 「누항사」에서는 권농 사상을 다루기도 했다. 「선상탄」, 「태평사」와 같은 전쟁 가사를 통해서도 노계의 현실 인식과 충효 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제곡」, 「독락당」, 「노계가」를 통해서도 강호 사상과 은일 사상을 다루고, 은일 사상을 도교 사상과 연결지어 논의하기도 했다. 작품의 화자가 적극적으로 자연에 들어가 생활하며 무릉도원과 같은 무위자연을 예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장(老莊)의 도교 사상을 실천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⁶⁾

노계 가사를 비교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노계와 함께 3대 시가 시

4) 손장수, 『노계 박인로의 시문에 드러난 전고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 이와 관련한 성과들은 그 수가 많아 참고문헌에 제시했다.

인으로 불리는 송강 정철과의 비교가 많았는데, 노계 가사가 한문 전고가 자주 쓰이고 관념적인 한자어가 많다 보니 일부에서는 가사에서 송강에게 뒤지고 시조에서는 고산에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대 인물이면서 처지가 비슷했던 정훈과도 비교도 이루어졌다. 나병호(1989)는 노계가 유교 이념에 치우쳐 있고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 비해 정훈은 현실비판과 비참한 생활상을 노래하면서 고유어를 사용하여 유연하고 참신한 예술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⁷⁾ 노계에게 영향을 준 중국 시인인 도연명과과의 관련성을 살피기도 했으며⁸⁾ 최근엔 「노계가」와 소식의 「적벽부」를 비교하는 등 개별 작품의 비교 연구까지 진행되었다.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노계는 다른 가사 작가보다 훨씬 많은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가사 작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노계는 “시(詩)는 뜻을 말하고 가(歌)는 말을 노래한다. 그러나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발하게 하는 것은 가(歌)가 최고가 된다.”¹⁰⁾라고 하여 한시보다 가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노계는 가사에 대한 분명한 작가 의식을 갖고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특정한 소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가사를 창작하여 폭넓은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다. 17세기 이전까진 강호 가사 위주였으나 노계는 강호 가사뿐만 아니라 전쟁 가사, 은일 가사, 교훈 가사 등 다양한 가사를 창작했다.

특히 노계 가사는 양반 가사와 아울러 서민 가사의 모습까지 지님으로써 전환기 가사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

7) 나병호, 「정훈 박인로의 시가 대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8) 동 달, 「박인로와 도연명의 시가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1987.

9) 양철리, 『박인로 노계가의 비교문학적 연구: 소식 적벽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0) 朴仁老, 『蘆溪集』권2, 「行狀」: “嘗曰, 詩言志, 歌永言. 而感發人之善心, 歌爲最, 二南亦歌也.”

다. 노계는 도학자의 사고를 보여주면서 서민이 겪는 가난한 삶을 체험했다. 노계 가사에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과 궁핍한 생활상은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서민 가사의 선구적 특성을 보여준다. 노계의 가사에 대해 후기 가사의 시초라든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이라는 문학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¹¹⁾

그러면 지금까지 축적된 노계 가사의 성과 가운데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노계 가사의 성격 및 사상과 관련해 「누항사」, 「독락당」, 「노계가」, 「소유정가」, 「사제곡」, 「입암별곡」 등에 대해 강호 가사, 은일 가사, 귀농 가사, 송축 가사 등 연구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노계가」, 「사제곡」, 「소유정가」를 강호 가사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나 「누항사」, 「독락당」, 「입암별곡」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누항사」는 은일가사로, 「독락당」은 송축가사(송양가사)로 보는 관점 등이 있다. 가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 그 작품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비슷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될 지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은일 가사로 불리는 작품을 도교 사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김경양은 도교 사상을 현실도피와 무위자연의 도가적인 은일적 삶과 자연애의 의미가 내포된 개념으로 보고, 「사제곡」, 「누항사」, 「소유정가」, 「독락당」, 「입암별곡」 등 강호 자연을 노래한 가사들이 도교 사상이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¹²⁾ 이는 연구자가 도교의 무위자연과 유학의 은일 사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11)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 김경양, 『노계 시가에 나타난 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얇은 까닭에 유학자의 강호 은둔의 삶을 도가사상으로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가사 내용 중에 도화동(桃花洞), 무릉(武陵), 선계(仙界) 등 도교에서 쓰는 단어가 나타난 점을 근거로 노계의 도교 사상을 도출하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위의 어휘들은 오랫동안 관습적인 어휘로 굳어져 버려, 전통적인 유학자들도 평화로운 자연의 경관을 읊을 때면 도교의 용어를 상투적으로 쓰곤 했다. 그러므로 도교적 상상력을 드러내는 어휘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작가가 도교 사상을 지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노계가 일부 도교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어휘를 쓴다는 사실이 도교 사상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는지는 더욱 깊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수영, 최영희, 김용철, 김성은 등에서 논의했듯이 노계 가사의 공간에 주목하는 태도가 주목된다.¹³⁾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공간은 인간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주는 도구이며,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은 작가가 지향하는 의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은 인본주의 지리학에 주목함으로써 공간을 객관적인 실재의 장소로 바라보기보다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공간은 한 개인의 경험과 삶이 녹아 있는 실존의 장소이다. 하지만 고전 시대 사람들은 선형적으로 주입된 지식으로 공간의 의미를 규정해 놓고 그 공간을 바라보았기에,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체험하거나 인식했다. 조선 시대 공간은 실제의 산수가 아니라 정형화된 공간이자 이상적인 공간인 경우가 많았다.¹⁴⁾ 노계 공간에 나타나는 장소성과 장소애를 깊게 탐구하거나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3) 구수영, 「蘆溪 朴仁老의 詩歌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용철, 「박인로 강호 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최영희, 「노계 박인로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4) 박수밀, 「박지원 문학에 나타난 공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82집, 한국언어학회, 2012, 181-182면.

1901-1991)가 말한 공간의 사회성에 주목하여 노계의 공간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노계 가사의 공간에는 자신의 고향인 영천을 비롯해 대구 경주 등 영남 지역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특수한 지역이나 한 개인을 노래하고 있어서 보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특수한 지역을 노래하고 있기에 노계 가사의 의미가 더욱 특별해진다. 지역적 색채는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심이 몰려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만의 독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노계 개인의 장소 체험과 지역의 로컬리티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 노계가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개인의 경험 공간으로 장소화하는지, 노계가 경험한 영남 지역의 공간이 얼마만큼 지역의 로컬리티를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노계의 공간에 오랫동안 기획되고 만들어진 사회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계 가사의 전환기 특성과 양면성을 더욱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노계 가사에는 서민 가사의 특성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전통 유가의 세계관에 기반한 도학의 구현과 체제의 안녕을 지향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계의 많은 가사는 유교 이념인 충과 효, 안빈낙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통받는 서민을 대변한다든가, 양반 세계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반 서민들을 유교적 질서 속에 재결합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현실의 문제를 양반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주장도 나타났다.¹⁵⁾ 노계 가사의 양면적 특성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다른 면을 바라보면 한계로 보일 수밖에

15) 승필호, 「노계 가사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9.

에 없다.

양반이면서 빈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계의 고뇌를 긍정적 측면에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곧 ‘양반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시선은 관점을 바꾸면 양반이었음에도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궁핍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 비록 서민 의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어도 서민의 생활상을 묘사했다는 점은 소재의 확대라든가 양반 가사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노계 가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서는 현실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노계가 영락한 양반의 처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계 가사의 전환기 가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노계의 심리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될 것이다. 노계는 임병양란(壬丙兩亂)을 몸소 겪으면서 그 속에 뛰어들고 그 체험을 글로 남긴 특별한 작가이다. 유교 질서를 충실히 재현하려 한 작가로 평가하기보다는 양반이면서도 곤궁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복잡한 속내를 그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체제 순응하는 모습이 전통 사대부의 특성을 드러내더라도 초라한 처지를 감내하며 충효를 말하고 안빈낙도를 노래하는 모습이 관념적인 도학 질서를 말하는 전통 사대부의 정서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3. 노계 가사 연구의 쟁점과 의미

노계 가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작가의 신분 및 경제 수준과 관련한 논란으로 보인다. 작가의 신분과 경제 수준은 작품을 이해하

고 해석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어서 단순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먼저는 창작 시기와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겠다. 노계의 가사는 문집에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나타나 있어서 대다수 작품은 창작 시기를 비교적 쉽게 고증했지만 몇몇 작품은 창작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누항사」의 경우 1611년 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1596년에 쓰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노계집』에 따르면 노계가 한음과 교류할 때 한음이 노계에게 산촌 생활의 곤궁한 형편을 묻자 노계가 자신의 회포를 풀어 「누항사」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노계가 한음과 교류할 때가 한음이 벼슬에서 물러나 노계와 교류할 때인 1611년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광조는 「누항사」의 창작 연대를 단정적으로 말한 기록은 아니라고 하면서 1596년에 지은 작품이라고 주장했다.¹⁷⁾ 작품에서 “兵戈五載에 敢死心을 가져 이셔 履尸涉血 ㅎ야 몇 百戰을 지누 | 연고”라는 구절에서 ‘兵戈五載’라는 표현에 근거할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5년째 되던 해인 1596년, 곧 노계 나이 36세에 지은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박인로 자신의 체험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전란과 기근으로 인해 동요하는 민심을 노래를 통해 교화하고자 한 한음의 의도가 개입된 작품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병과오재는 과거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라 보는 편이 더 타당하며 많은 연구자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듯이 노계의 생애를 잘 고증해 보면 1611년이 타당해 보인다.

작가와 관련해서는 「입암별곡」과 「소유정가」에 대해 작가 논란이 있었다. 두 작품은 노계의 문집에 실린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필

16) 朴仁老, 『蘆溪集』권3, 「陋巷詞」: “公從遊漢陰相公, 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 公乃述己懷作此曲.”

17) 김광조, 「陋巷詞에 나타난 ‘歎窮’의 意味」, 『고전과 해석』 2,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회, 2007, 31-55면.

사본 형태로 발견되다 보니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立巖別曲」은 1979년에 김일근 교수가 영양사우(永陽四友)의 한 사람인 권극립(權克立) 후손의 집에서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했다. 작품 끝의 여백에 “立巖別曲 朴萬戶 所昌”이라고 써 있어서 작가가 노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만호는 노계가 52세에 역임한 벼슬 이름이다. 「소유정가」는 김문기 교수가 고서점에서 가첩(歌帖)의 형태로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했다. 「소유정가」 역시 제목 아래에 “朴萬戶仁老作永川人”이라고 적혀 있다. 김문기는 「소유정가」는 작가를 밝힌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 표현 등에서 박인으로 가사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¹⁸⁾

그런데 황충기는 「입암별곡」의 본문에 등장하는 卓立巖이란 명칭이 여헌 장현광과 노계의 생전 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쓰인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입암별곡」의 작가가 누구인지 지목할 수는 없지만 후대에 쓴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¹⁹⁾ 「입암별곡」은 노계가 여헌과 노닐면서 지은 글로 기술되어 있는데 여헌은 노계와 막역한 사이였다. 이에 대해 김일근은 여헌이 최후로 입암촌에 들어와 거처를 정리하고 입암에 제를 올릴 때 卓立巖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면서 여헌이 죽고 나서 노계가 「입암별곡」을 창작했으므로 立巖을 卓立巖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반박하였다.

「소유정가」에 대해서도 연구 초기에 작가 논란이 있었다. 「소유정가」는 『노계집』 권3에 실려 전하는데 그 창작 배경에 대해 “사제는 지명으로 용진강 동쪽으로 5리 정도에 있는 한음(漢陰) 이상공(李相公)의 강정(江亭)이 있는 곳이다. 공이 상공을 대신해 이 사제곡을

18) 김문기, 「노계의 소유정가 小攷」, 『국어국문학』 4, 국어국문학회, 1980, 255-256면.

19) 황충기, 「立巖別曲과 立巖二十九曲의 대비고찰」, 『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회, 1980, 75-107면.

지었다.”라고 적혀 있다.²⁰⁾ 이에 따라 이 작품은 노계가 한음을 대신 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충기(1969)는 노래의 내용으로 보아 한음이 51세 정월에 용진에 머물고 있을 때 마침 찾아온 노계와 더불어 회포를 풀어 쓴 작품인데 한음의 후손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노계의 후손들이 노계의 작품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윤영옥(2002)은 「소유정가」에 박인로의 다른 작품의 표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뒷부분은 「선상탄」, 「사제곡」, 「노계가」의 표현들을 종합해 놓았기에, 노계가 창작했다면 그의 창작 의지가 그러한 표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소유정가」의 문맥이나 내용이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노계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이에 대해 이 작품을 발굴한 김문기는 「소유정가」는 노계의 작품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²³⁾ 첫 번째 근거로 「소유정가」라는 제목 아래 “朴萬戶仁老作 永川人”이라고 작가가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소유정가」가 내용, 형식, 표현 등에서 기존 노계 가사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소유정가」에는 노계의 기존 작품에 쓰인 구절과 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필자 생각에 「소유정가」에 노계의 다른 작품의 표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소유정가」가 노계의 작품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고전 시대의 창작 태도는 오늘날의 작가 윤리와는 많이 달라서 자신이 표현했던 구절을 다시 쓰는 행위를 그다지 흠으

20) 朴仁老, 『蘆溪集』 권3, 「莎堤曲」: “莎堤地名, 在龍津江東距五里許, 卽漢陰李相公江亭所在處也. 公代相公作此曲.”

21) 황충기, 「莎堤曲 小考」,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문학회, 1969, 183-194면.

22) 윤영옥, 「사제곡과 소유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7-204면.

23) 김문기, 「소유정가의 특징과 가치」, 『한국학논집』 16,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9, 75-84면.

로 여기지 않았다. 표절 윤리도 약했던 시절이라 제자에게 대신 쓰게 한 뒤에 자신의 작품으로 다듬어 쓰는 일도 종종 있거니와 용사(用事) 전통이 있다 보니 전대(前代)의 표현을 옮겨다 쓰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썼던 표현을 다시 활용하는 행위는 오늘날의 창작 윤리에서 보자면 큰 흠이 되지만 당시의 현실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는 창작행위였다.

몇 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연구자들은 「입암별곡」과 「소유정가」를 포함하는 11편의 가사를 노계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계는 생전에 영락(零落)한 처지였고 그의 후손도 제대로 된 벼슬을 못했기에 노계의 작품은 온전히 수습되지 못했다. 노계의 행장에 따르면 노계는 평소 지은 글이 매우 많았지만, 집안의 화재와 전쟁으로 잃어버려 아름다운 말과 선한 자취가 겨우 한 터럭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노계가 가사를 잘 지었고, 즐겨 창작했고, 인정받은 실력자였음을 고려해 보면 새로운 가사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사 전편(全篇)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노계의 문학을 다룰 때 노계의 문학과 세계관에 대한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실상이 드러나리라 본다.

노계의 신분과 경제 수준에 관한 논쟁은 첨예한 쟁점이 되어 왔다. 노계는 영천 도천리에서 태어났다. 선대는 현달한 가문이었지만 점차 중앙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한미한 집안이 되었다. 노계에 이르러서는 노계 자신이 무과에 급제했지만 입지를 다질 만한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며 둘째의 창릉 참봉을 마지막으로 집안의 벼슬은 끝났다. 곧 노계는 선대의 뿌리로 보자면 사족(士族)이지만 가정 형편은 궁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노계의 신분에 대해서는 영천 지

24) 朴仁老, 『蘆溪集』권2, 「行狀」: “公平日著述甚多, 其家失之灰燹, 今此嘉言善蹟, 祇是一毫芒耳.”

방을 터전으로 삼은 지방 사족, 곧 재지사족(在地士族) 혹은 한미한 향반(鄕班)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노계를 잔반(殘班)으로 보기보다는 영천 지역의 유력한 재지사족으로 보려는 입장도 있다. 이동휘(1999)는 노계가 향촌 질서의 개편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던 향촌 사회의 사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1만평에서 2만평 사이의 토지를 소유한 중소지주층이라 보았다. 그리하여 「누항사」는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현실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향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보아온 궁핍한 처지에 놓인 이웃의 한 사족이 어렵사리 직접 농사하는 모습을 보고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는 경제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뒤이어 최현재(2003, 2004, 2013)는 여러 편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노계를 몰락한 잔반(殘班)으로 보기보다 명작(名作)을 다수 창작한 영남 지방의 유명한 사족이며 생활이 어느 정도 풍족했던 인물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⁵⁾

최현재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먼저는 노계가 살던 시대에 양반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개별적이지 않고 가문 집단이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어 노계는 영천의 명문거족인 밀양 박씨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한미하지 않은 재지사족으로 생존 당시 영천이라는 향촌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둘째로 노계는 임진왜란에 지도자급 의병으로 참여하여 공을 세운 포상으로 선무원종(宣武原從) 공신(功臣)이 되었는데, 각 지역의 양반들이 공신 선정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

25)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서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181-208면.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최현재, 「박인로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235-266면.

에 포상 대상으로 추천된 사람도 역시 유력양반층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노계는 의병 활동에 대한 포상의 성격을 지닌 광취무과(廣取武科)에 합격하여 조라포만호까지 역임했는데, 만호는 종사품 무관직으로서 결코 미관말직의 하참은 벼슬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노계는 품계 상 군수와 동급인 조라포만호를 역임한 데다 임진왜란 후에 국가로부터 의병 활동에 대한 포상을 받아 상당한 경제적 부를 누렸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노계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정훈, 강복중과 노계는 모두 향촌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인 기반을 가진 재지 사족으로써 서로 유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노계는 이덕형, 조호익, 정구(鄭述), 장현광(張顯光) 등 당대의 현관(顯官)이나 거유(巨儒)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으며, 이들이 노계와 교류했다는 것은 노계의 지위가 상당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항사」 등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 모습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사족들의 보편적인 이념 지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적 표현기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종문(2018), 손대현(2010), 박현숙(2011) 등에 의해 비판받았다.²⁶⁾ 이종문은 노계가 유력한 재지 사족이라는 최현재의 견해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다. 첫째, 노계의 작품 가운데 누군가의 명령으로 지은 작품이 유난히 많으며 그 가운데는 나이가 20-30살 어린 사람의 명령을 받고 지은 작품들도 있다. 둘째, 노계의 이름이 나올 법한 다양한 기록에 노계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노계가 어떤 이유로 사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었을

26) 이종문, 「노계 박인로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82, 민족어문학회, 2018, 33-70면.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121-156면.

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87-114면.

가능성이 높다. 셋째, 노계 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노계가 사회적 약자라는 증거들이 많다. 넷째, 노계의 가계가 족보에서 거듭 누락된 것을 보면 노계 집안의 사회적 위상이 유력한 재지사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섯째 노계의 묘소가 소박하고 조촐한 것은 당시 노계 집안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노계는 유력한 재지 사족이 아니라 여러 문제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손대현(2010)은 노계의 「행장」을 중심으로 노계의 신분과 경제적 처지를 세심하게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노계 집안은 향촌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한미한 가문이었으며 초창기에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했으나 점차 사정이 나빠졌고 직접 농사를 짓는 자영농의 처지로 전락하였으며 말년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현숙(2011)은 『노계집』에 수록된 글에 노계 자신은 물론 지인들이 한결같이 노계의 삶이 가난하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계가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노계가 유력한 양반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은 노계가 양반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뿐 노계의 지위와 경제적 처지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아 「누항사」가 노계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노계의 신분이 한미한 향반(鄕班)이나 영향력 있는 재지 사족이나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노계의 문학 위상을 정립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특히 「누항사」는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할 정도로 궁핍한 처지로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논란이 된다. 전자로 보면 작품 속의 화자는 작가의 실제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 되지만, 후자로 보면 「누항사」에 나타난 궁핍함은 노계가 직접 경험한 현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현실을 대신 드러냈거나

상당한 표현이 된다. 이동찬(1999), 최현재(2004) 등이 이 입장을 갖고 있다.²⁷⁾

노계가 영향력 있는 재지 사족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추론에 의존한 것이 많지만 한미한 향반(鄕班)으로 보는 생각은 실증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노계의 행장에, “집안이 더욱 영락해져 사는 곳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흉년에는 야채죽도 잊지 못하기도 했다.”²⁸⁾라는 기록을 보더라도 노계가 후대로 갈수록 더욱 궁핍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누항사」에 나타난 화자의 삶이 상상에 기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사의 특성이나 작품의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어색한 면이 있다. 여러 학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더라도 다른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노계의 신분은 한미한 처지의 향반이고 「누항사」에 나타난 화자의 처지는 노계의 실제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편이 낫다.

양반으로서의 노계의 위상과 경제적 조건이 변변하지 못하다고 해서 작품의 문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분과 경제적 기반은 문학과 별 상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양반이면서 한미한 위치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다는 사실은 노계 가사의 문학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낮은 존재성은 역설적으로 높은 문학성을 이끌어 낸다. 「누항사」에 보이는 빈이무원(貧而無怨)과 안빈낙도의 다짐은 관념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소를 빌리지 못하는 수모를 겪는 실존적 현실에서 되뇌는 말이다. 똑같은 양반임에도 초라한 위치에서 거유(巨儒)들과 교류하는 일은 자부심을 갖게 하기보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쉽다.

27) 이동찬, 「누항사에 나타난 士族의 가난체험과 의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14, 전북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1999, 59-79면.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8) 朴仁老, 『蘆溪集』권2, 「行狀」: “以此家益落, 所居不蔽風雨, 歲儉蔬糲或不繼, 處之晏如也.”

20-30살 어린 사람의 부탁에 순응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노계 개인을 둘러싼 실존적 조건과 관계는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안빈낙도의 지향 안에 숨은 노계의 실존적 고뇌를 살필 것을 요청한다.

지극한 가난과 안빈낙도의 대명사인 형암 이덕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낙숫물을 맞으면서 험 우산을 입고, 섬돌 아래 약 찡는 절구를 괴어두고 새들을 문생으로 삼고 구름을 친구로 삼는다. 이런 형암의 일생을 두고 ‘그것 참 편안한 생활이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우습다. 참으로 우스워.”²⁹⁾ 이덕무의 빈이무원 정신은 궁핍한 생활을 끊임없이 견뎌내면서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음에도,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이고 관념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다. 노계의 도학 추구는 일반 사대부의 관념적인 정신세계 차원이 아닌, 한 개인의 치열한 실존적 고뇌와 갈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상사곡」과 「권주가」 등을 내면의 갈등에서 풀어보고 노계가 반복해서 충효를 노래하는 것을 자기 존재성의 확인 차원에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노계는 노계만의 독특한 문학세계와 빛깔을 지닌 가사 문학 전문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일이 후대의 연구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4. 결론: 노계 가사 연구의 방향

『노계집』의 발문을 쓴 정하원(鄭夏源, 1762-1833)은 노계가 종종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른 것이 모두 후세의 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³⁰⁾ 대체로 서문이나 발문은 저자와의 인연 때문에 상찬(賞讚)을 해주는

29) 이덕무 저/강국주 편역, 『깨끗한 매미처럼 향기로운 굴처럼』, 돌베개, 176면 2008.

30) 朴仁老, 『蘆溪集』, 「蘆溪集跋」: “往往發而爲詩爲歌者, 皆可爲後世法.”

것이 관례지만 후세의 법이 되었다는 평가는 곱씹어볼 만하다. 노계의 가사가 당대 사회에서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자어가 많고 생경한 표현이 많으며, 중국의 고사가 많고 관념적인 유교 이념이 자주 드러난다는 점이 노계 가사의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조선 시대 지식인들은 한자를 인류 보편의 문자로 인식하고 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자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 문학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한자어는 관념어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생경한 표현이다. 전고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고사를 쓰기 마련이다. 한자어가 많기에 노계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내용은 한자어를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체 특성이다. 송강의 「속미인곡」이 고유어가 많기에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노계 가사에 한자어가 많다는 이유가 낮게 평가되는 주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노계 가사도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다만 노계 가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문체 너머 내용에 담긴 노계의 고뇌와 내면의식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규양(鄭葵陽)이 쓴 노계 「행장」에 따르면 노계는 넓고 큰 재능을 지녔으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하찮은 직책 사이에서 부침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때로는 격앙했다고 한다.³¹⁾ 또 근래 김석배(2017)에 의해 발굴되고 연구된 『노계선생문집』 초간본 검토에 따르면, 후대의 편찬자들이 노계집을 간행할 때 직설적이거나 노골적인 표현은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고 궁핍함을 괴로워하는 마음이나 세태를 원망하는 뜻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삭제했다고 한다. 후손이 노계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체면에

31) 朴仁老, 『蘆溪集』권2, 「行狀」: “公負材宏遠, 而世無知者, 浮湛褊裨間, 則輒邑邑不自聊, 有時激昂.”

손상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친 것인데 문집을 간행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참된 문학적 가치가 드러나는 곳은 오히려 인간의 진솔함이 드러나는 곳, 발분저서의 마음이 나타난 곳에 있다. 도덕의 눈에서는 체면이 손상되는 곳이 문학의 눈에서는 최고의 진솔한 문학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노계 가사의 초간본 작품을 잘 살펴 노계 가사에 나타난 작가의 진솔함, 발분 의식, 인간적 고뇌 등을 읽어낸다면 노계 가사의 독자적인 문학성이 더욱 드러나리라 본다. 그랬을 때 관념적인 유교 이념이니 도학의 정신 구현이니 하는 평가도 다른 시선으로 볼 여지가 생길 것이다.

노계 가사는 공간 미학과 양가적兩價的 내면 의식 층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Main Issues of Aspects and History of the Study
about the Lyrics of Nogye, Park Inro.

Park, Su-mil(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m up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y in terms of the lyrics of Nogye's an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future study after reviewing many aspects about his lyrics. First of all, it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of study for the lyrics of Nogye's, especially of the writing periods and the current study status for his each lyrics. From this first approach, the location issue of his lyrics is to be considered seriously. It is a location, Yeongnam province. The key points are Nogye's personal experience in this prov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location, and political, social symbols of its. It is necessary to study more the feature of exchanging terms and the ambiguity. From the point of disputing issues of his lyrics there are writing period and writer himself. And then the critical issues about his social position and financial status are to be traced. The clarification of his social position, whether a low local elite or a nobleman, gives critical effect in interpreting his writings and in setting up his literary status. It turns out from many scholars' opinions that Nogye was a local elite and it would be better to understand that the situation of narrator in 'NuHangSa' is actually

Nogye's real life. The fact that he was a mere local noble with humble financial status leads to renewing his literary property. His ethical point of view is to be reviewed in terms of his personal existential concern. Along with it, if the writer's authentic, his disclosed awareness, human concerns would be found in his lyrics, by reviewing the works of his first drafts, the unique literary value of his lyrics could be discovered. In short, Nogye is to be considered as a great writer of unique literary points of view and his own colours, the study of his lyrics shall be continued more actively, considering space aesthetics and ambivalent inner consciousness.

Key words: Nogye, Park Inro, Lyrics, The history of Nogye study, Location, 'NuHangSa'

[참고문헌]

□ 논문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한민족어문학』제 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 193-230면.

구수영, 「蘆溪 朴仁老의 詩歌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김경양, 『노계 시가에 나타난 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광조, 「陋巷詞에 나타난 ‘歎窮’의 意味」, 『고전과 해석』 2,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회, 2007, 31-55면.

김문기, 「노계의 소유정가 小攷」, 『국어국문학』 4, 국어국문학회, 1980, 255-256면.

김문기, 「소유정가의 특징과 가치」, 『한국학논집』 16,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9, 75-84면.

김석배, 「노계선생문집 판본에 대한 재고」, 배달말학회, 2016년도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경남대 사범대학, 2016.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연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219-239면.

김선규, 「蘆溪 朴仁老의 歌辭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6.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용철, 「박인로 강호 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일근, 「朴萬戶 所唱의 입암별곡 고찰」 『국어국문학』 81, 국어국문학회, 1979, 175-175면.

이승남, 「누항사의 갈등 표출」, 『한국문학연구』 2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2, 229-252면.

김희태, 「蘆溪 朴仁老 가사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5.

나병호, 「정훈 박인로의 시가 대비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89.

동 달, 「박인로와 도연명의 시가 비교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87.

박수밀, 「박지원 문학에 나타난 공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82

- 집, 한국언어문학회, 2012, 181-204면.
-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341-364면
- 박진영, 「蘆溪 朴仁老의 歌辭 文學에 관한 研究」, 순천대 석사논문, 2002.
- 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 『국어국문학』157, 국어국문학회, 2011, 87-114면.
- 성선영, 「송강가사와 노계 가사의 대비 연구: 미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995.
- 손공자, 「노계 가사의 특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4.
- 승필호, 「노계 가사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9.
- 신혜경, 「蘆溪 歌辭에 나타난 思想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6.
-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121-156면.
- 손장수, 『노계 박인로의 시문에 드러난 전고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양설희, 『박인로 노계가의 비교문학적 연구: 소식 적벽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윤영옥, 「사제곡과 소유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7-204면.
- 이덕무 저/강국주 편역, 『깨끗한 매미처럼 향기로운 굴처럼』, 돌베개, 2008.
- 이동찬, 「누항사에 나타난 士族의 가난체험과 의식의 변화」, 『한민족어문학』 14, 전북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1999, 59-79면.
- 이상보, 「노계 박인로의 시경관을 살핌」, 『국학연구논총』 7, 택민국학연구원, 2011, 123-134면.
- 이선평, 『노계 가사 연구: 율격 및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이종문, 「蘆溪 朴仁老 文學의 創作 空間과 遺蹟 관련 몇 가지 探索」, 『대동한문

- 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179-216면.
- 이종문, 「노계 박인로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82, 민족어문학회, 2018, 33-70면.
- 이종문, 「立巖二十八景의 위치에 관한 재검토」,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201-224면.
- 임재욱, 「가사의 형태와 향유방식 변화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전재진, 「송강과 노계 가사의 미학적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기봉, 「송강 노계 시가의 대비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1989.
- 조유영, 「17세기 시조의 전개와 변모 양상-영남 재지사족 시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상은, 「蘆溪 歌辭의 작품구조와 현실 인식」, 『반교어문연구』 1, 반교어문학회, 1988, 181-200면.
- 최상은, 「노계 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255-278면.
- 최영희, 「노계 박인로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최현재, 「蘆溪 朴仁老의 善歌者로서의 面貌와 그 意義」, 『우리말 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343-365면.
-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서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181-208면.
-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최현재, 「박인로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235-266면.
- 한창훈, 「박인로 정훈 시가의 현실 인식과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3.

한창훈, 「박인로 가사의 4음보 율격 변이 양상과 그 성격」, 『국어문학』 37, 국어
문학회, 2002, 283-308면.

황충기, 「莎堤曲 小考」,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문학회, 1969, 183-194면.

황충기, 「소유정가 고」, 『경희어문학』 6,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3, 277-
290면.

황충기, 「立巖別曲과 立巖二十九曲의 대비고찰」, 『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
회, 1980, 75-107면.

접수일: 2020.11. 25 총평일: 2020.12.19 게재확정일: 2020.12. 23